

16/04/10(주) 주일예배 / 제목 :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마3:1~12) p.3

(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2014년 8월 달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황을 맞이하는 수행원이 300명, 경호원이 300명, 취재하는 기자가 2000명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도 100만 명이 교황을 보려고 미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영접입니다. 교황을 맞이하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모태에 임신될 때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눅1:15~17)**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실로 그는 주님의 사자였으며 주님에 대하여 증거했고 말리기에서 오리라고 성경이 예언한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에도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말4:5~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을 가리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백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런 응답도 없구나’ 하고 탄식할 만큼 답답한 세월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단 한 사람의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곧 구약과 신약의 빈 공간과 같은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간기라고 또는 암흑기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적막을 깨뜨리고 하늘의 소식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2절)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것은 분명히 선지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요한 선지자의 출현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회개를 외쳤고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고자 합니다.

본론 / 세례요한의 사역이 주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1.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태가 이사야 43:3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 하였으므로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도록 길을 닦아 놓은 자였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면 사전에 정부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순분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도 갖추고 대통령이 올 때 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맡은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스가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스가라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처럼 요한 역시도 마

땅히 성전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귀하게 자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한 예루살렘의 안락한 집을 떠나 유다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자니 광야에서 지내기에 적당한 낙타털 옷을 입고 밤의 추위를 견디며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石淸: 벌이 돌 사이에 모아 놓은 야생꿀)이었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런데 광야에 무슨 메뚜기와 석청()이 널려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가 자신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역을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나, 동네 어귀나, 회당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단순한 모래사막이 아니라 잡초가 여기저기 널려지고 바람이 부는 황량한 언덕입니다. 그러나 광야 그 자체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하게 만드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이유는 순종여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신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내며 사역을 다시 시작했고,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예배하게 만드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 그 광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이 입은 약대 털옷은 정교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낙타 가죽을 벗겨서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 끈으로 적당히 둘렀을 뿐입니다. 그가 먹던 메뚜기와 석청(야생 꿀)은 그 당시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광야에서 얻던 것들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메뚜기를 잡아 날로 먹었을 것이고 야생 꿀을 따서 먹었을 것입니다. 잠은 대충 이슬이나 피할 정도의 굴 같은 곳에서 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요한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사명에 충실한 요한의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보여준 정신만큼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거나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희생과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의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도 분명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안락한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다 내려놓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예도, 예루살렘의 안락한 터전도,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주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1.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2.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회개란 말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아픈 감정과 통회함과 동시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뼈아픈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서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와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결단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아주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6절)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돌이키다’입니다.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요한의 말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에게 하는 독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 하면서도 자신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고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바른 회개의 열매를 맺어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진실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백성은 회개했을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눅3:10~14) “(10)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서 옷 두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이요. 군인은 힘으로 빼앗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던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욘3: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니느웨 백성이 삼베 옷을 입은 것이나 금식하는 것을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사1:16~17)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회개하고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

게 해야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회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물은 있는데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물조차도 말라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한국교회에 이 회개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교회 지도자들부터 이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나타날까요? 이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을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나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받는 쪽정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서 지옥으로 가는 가라지 성도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새로운 세례, 곧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과 불세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불세례를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불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여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실 세례, 곧 불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불세례를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불세례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핵심 :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읍시다.

요약정리 / 세례요한의 사역이 주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1.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2.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